



## 오늘의 작품



### ■ 이수경 작 '번역된 도자기'

## 도자기 파편의 미학

'번역된 도자기(Translated Vases)'는 도공이 깨뜨려버린 백자 파편들을 수거한 뒤 이 조각들을 기교하고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붙여 새로운 형태로 만든 변형된 도자기다. 버려진 도자기 파편들을 하나 하나 붙여 마치 세포가 증식하는 것처럼 미리 정해지지 않은 구조적 덩어리로 형상화 했다.

작가는 이같은 작업 과정에 대해 "명작이라는 기준을 벗어난 도자기 파편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찾아주는 일이다"고 설명한다.

이씨는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특정 매체나 특정 주제로 일관된 작업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에 따라 매체간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적 작업을 추구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오늘의 비엔날레 (22일)

▲열풍고(熱風告)=오전11시·오후2시, 빛카페 원형무대. 내 드림진도복춤이보존회가 선보이는 흥겨운 민속무용.

▲하니되어=오전10시~오후6시, 민속박물관 2관. 광주정신지체아협회가 마련한 도자기 작품 전시회와 도자기 체험전.

▲마리이치=오후2·3·4시, 주전시관 앞. 맥시코 5인조 그룹이 펼치는 거리공연.

드라마 '대장금' → 애니메이션 → 뮤지컬  
연극 '이(爾)' → 영화 '왕의 남자' → 뮤지컬  
만화 '울드보이' → 영화 → 연극

# 문화관 '원소스 멀티유스' 세상

(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콘텐츠를 영화, 뮤지컬, 드라마, 게임, 캐릭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부가가치를 늘리는 원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 use)가 문화계의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같은 제작 방식은 이미 한차례 대중으로부터 감증을 받아 위험 부담

이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대장금'(제작비 50억원)을 뮤지컬로 제작한다. 2007년 5월 초연예정인 '대장금'의 오디션에는 최근 1천300여 명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뤘다. 영화를 뮤지컬로 만드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창작 뮤지컬 '와이키기 브러더

봉을 기다리고 있으며 '식객'은 김강우 주연의 영화와 김래원 주연의 드라마로 동시에 제작 중이다.

강풀의 작품 역시 발표 속속 영화로 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 '아파트' '바보' '순정만화' 등이 영화로 만들어졌고 '순정만화'는 연극으로도 공연



뮤지컬로 만들어지는 '대장금'

이 적다는 게 최대 장점. 또 스토리 등을 알고 있어 '인지도' 등을 높여야 하는 홍보 마케팅도 훨씬 수월하다. 반면 전작에 대한 기대치가 높거나, 자칫 식상할 수 있다는 점은 넘어야 할 산이다.

이같은 흐름의 대표 주자가 연극 '이(爾)'다. 연극무대에서 각종 상을 휩쓴 '이'는 영화 '왕의 남자'로 만들어져 '전국민의 영화'가 됐다. '이'는 창작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10월14일 부산에서 초연된다.

▲뮤지컬이 대세다=뮤지컬이 문화계의 총아로 떠오르는 추세에 맞춰 뮤지컬 붐이 일고 있다.

'난타'의 PMC 프덕션과 MBC는

'스'는 바로 동명의 영화가 원작. 영화 '구미호 가족'은 조만간 뮤지컬로도 만들어지며 영화 '싱글즈'와 '조용한 가족'은 '행나무잠대'도 뮤지컬을 준비 중이다.

외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라이온 킹' '미녀와 야수' '빌리 엘리어트' '반지의 제왕' 등이 뮤지컬로 만들어져 인기행진 중이다. 반대로 인기 뮤지컬 '프로듀서'와 '맘마미야'는 영화로 만들어졌다.

▲만화, 상상을 풀어냈다=요즘 문화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장르는 만화다. 드라마, 게임, 영화, 뮤지컬 등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허영만의 작품은 영화와 드라마로 동시에 만들어졌다. '타짜'는 추석계

중이다. '다세포 소녀' 역시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캐릭터 상품인 '가난 인형'까지 출시됐다.

▲연극·영화·소설의 교류=일본 만화가 원작인 영화 '울드보이'는 최근 연극으로도 만들어졌으며 김영하의 소설 '흡혈귀',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 등도 연극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의 원작이 공연 10주년을 맞는 연극 '날 보러와요'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800만 관객을 모은 '웰컴 투 동막골'과 '박수칠 때 떠나라' 역시 모두 장진 감독이 희곡을 쓴 연극이 원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일본 명치·대정시대의 생활문화사' '일본 문화의 힘' 전남대 일문과 김정례교수 책 2권 발간

전남대학교 일문학과 김정례(45·사진) 교수가 일본 민속학의 창시자인 야나기타 구니오(1875~1962)의 '명치대정사 세상편'(1931)을 번역·출간했다.



한국어판의 제목은 '일본 명치·대정시대의 생활문화사'(소명출판 펴냄)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동서양 학술명저 번역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부터 진행됐다. 책은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전개된 생활문화를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아닌 민중 감각의 변화 차원에서 파악했다.

김 교수는 또 최근 영화평론가 김봉석씨, 한창완 세종대 애니메이션학과 교수 등과 함께 '일본 문화의 힘'(동아시아 펴냄)을 펴냈다. 책에서 김 교수는 하이쿠(일본 고유의 짧은 시 형태)를 통해 일본과 소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다시보는 연극 '다시라기'

### 23·24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진도의 전통 장례문화를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연극 '다시라기'가 무대에 오른다. 23·24일 오후 4시·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참가작으로 광주연극협회 회원들이 총출동한 작품인 '다시라기'는 고(故)허규씨가 진도의 장례문화를 모티브로 집필한 희곡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작품이다.

직접 상가(喪家)의 조문객이 된 관객들은 극중 인물인 가상주, 봉사, 마누라,

저승사자의 한바탕 난장을 통해 죽음이 곧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된다. 사물놀이, 남도지방 민요, 노동요, 싹깃굿과 함께 노래와 춤·해학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김창일씨와 차영호씨가 각색과 연출을 맡았다.

광주연극제 등에서 수상한 한인선·이기인·김상우·고난영·오실근·심성일씨 등 광주의 대표배우들이 출연하며 박춘맹(장), 김금례(안무), 하늘다래(연주) 등이 함께 참여했다. 2만원, 1만원, 문의 062-521-32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아시아음악 발전 전략 점검 '음악산업포럼'

###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등 광주의 음악산업 도모를 위한 행사가 활발한 가운데 아시아음악의 발전 전략을 점검해 보는 포럼이 열린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영주)은 22일 오전10시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제4회 음악산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교류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김재범 교수(성균관대 경영학부)의 사회로 진행되며 1부 '아시아 공연교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부 '디지털 음악 콘텐츠 산업과 해외 비즈니스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h3>부동산경제 전문회사</h3> <p>부동산경제 전문회사</p> <p>부동산경제 전문회사</p>	<h3>대량부동산</h3> <p>대량부동산</p> <p>부동산경제 전문회사</p>	<h3>매지부동산</h3> <p>매지부동산</p> <p>부동산경제 전문회사</p>	<h3>고교공인중개사</h3> <p>고교공인중개사</p> <p>부동산경제 전문회사</p>	<h3>신해당부동산주위</h3> <p>신해당부동산주위</p> <p>부동산경제 전문회사</p>	<h3>호남랜드공인중개사</h3> <p>호남랜드공인중개사</p> <p>부동산경제 전문회사</p>
---	---	---	---	---	---

### 거상부동산건설팀 부동산 교환

부동산 교환

부동산경제 전문회사

###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입·판매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입·판매

부동산경제 전문회사